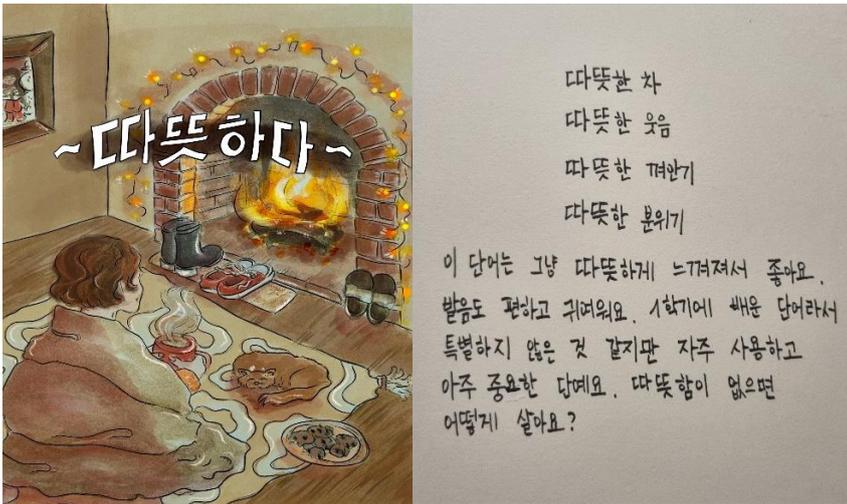


2021 King Sejong Institute Hangeul-Tag

튀빙겐 세종학당 한글날 행사

“Meine koreanische Postkarte” – Gewinner

1등. Gabriele-luka Ruzyte



2등. Kim-Katharina Frank



저는 작년에 튀빙겐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은 3학기 학생이어서 내년엔 한국에 갈 겁니다. 선생님들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하지만 가끔 힘든 시간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. “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.” 우리 모두가 원숭이처럼 실수를 합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실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우리는 실수를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! 실수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. 다 잘 될 겁니다.

3등. Annabelle Schönherr



저는 귤을 아주 좋아해요!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귤입니다.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“귤”입니다. 매년 겨울마다 귤을 먹어요. 귤이 너무 맛있어요! 그리고 단어가 “귤” 정말 귀여워요.